

2010 프로야구 3월 27일 개막

KIA 타이거즈가 내년 3월27일 잠실벌에서 두산 베어스와 대결을 시작으로 2연패에 도전한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30일 2010년 프로야구 경기일정을 확정 발표했다. 시즌 개막 일정은 내년 11월에 열리는 광주 아시아안게임에 대비해 예년보다 조금 앞당겨졌다.

개막전은 2008시즌 상위 4개팀의 구장에서 2연전으로 진행된다. 2008년 6위로 시즌을 마감했던 KIA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잠실에서 두산과 시즌 첫 대결을 갖는다. 문학구장에서는 SK와 한화의 대결이 열리고, 사직구장에서는 롯데와 히어로즈의 경기가 펼쳐진다. 삼성은 대구구장으로 LG를 불러들인다.

2008시즌을 개막전 기준으로 삼은 데 대해 KBO는 "좀 더 일찍 일정을 확정해

1주일 앞당겨 ... KIA, 잠실벌서 두산과 개막전

호랑이 군단 1월 4일 신인 입단 본격 시즌 돌입

홍보하기 위해 시즌 중에 일정을 만들었기 때문에 작년 성적을 기준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팀당 경기수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133경기. 총 532경기가 2010 프로야구 그라운드를 수놓는다.

어린이날 경기는 KIA, SK, 삼성, LG 홈구장에서 열리고, 7월24일 개최되는 '별들의 잔치' 올스타전은 97년 이후 13년 만에 대구구장을 찾는다. 월요일 경기와 더불어 더는 내년부터 폐지된다.

무등기 전국고교야구대회가 열리는 6월

14일부터 20일까지 KIA는 원정 6연전에 나선다.

KIA의 2010년은 '아기 호랑이'들의 입단으로 시작된다.

KIA는 내년 1월4일 오전 광주 서구 내방동 구단 사무실에서 2010년 신인선수 입단식을 갖는다. 심동섭·임기훈 등 신인 선수 8명은 정식으로 KIA 유니폼을 입고 프로 선수로 첫 발을 내딛는다.

5월에는 2010시즌을 위한 본격적인 탐금일이 시작된다.

무등기장에서는 새해 첫 합동 훈련이

진행되고, 재활조인 투수 윤석민·서재응·곽정철·신용은, 포수 김상훈, 외야수 이용규가 스프링캠프 선발대로 광으로 출국한다.

재활조에 이어 투수조와 야수조가 차례로 전지훈련을 떠난다. 우승팀 일정을 소화하느라 훈련량이 부족했고 개막까지 빨리지면서 전지훈련도 일찍 시작된다. 10일 투수조가 광으로 출국할 예정이고 17일에는 야수조가 일본에 캠프를 꾸릴 계획이다.

전용 훈련장 건립도 본격화된다. 훈련장 설계도를 검토중인 KIA는 부지가 확정되는 대로 곧바로 착공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훈련장 예상부지 면적만 5만㎡(약 1만 5천평), 비용만해도 100억원이 넘게 투입될 예정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히어로즈, KBO 가입금 완납 '선수세일' 잇따를 듯

연말 프로야구판을 어지럽혔던 히어로즈 가입금 문제가 해결됐다.

이에 따라 히어로즈 간판 선수들의 트레이드가 잇따라 진행될 전망이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30일 강남구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유영구 총재와 8개 구단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2009년 제6차 이사회를 열어 히어로즈 구단의 가입금에 대해 논의한 결과 두산과 LG가 히어로즈로부터 각각 송금받은 15억 원씩을 KBO 통장에 입금하도록 했다.

이날 이사회에는 의결권을 위임한 KIA 서영종 사장을 제외한 7개 구단 사장이 참석했다. 이사회는 히어로즈 구단의 서울 입성에 따른 연고지 분할 보상금으로 두산, LG에 각각 27억 원씩을 지급하도록 확정했다. 또 SK가 요청한 현대 구단 연고지 분할 보상금에 대해서는 해당 구단의 현대가 없어진 점을 고려하고 SK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양보해 20억 원을 보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SK는 애초 전신인 현대 유니콘스가 7년간 수원에 머무른 탓에 연고권을 행사하지 못 했다며 보상금 63억 원을 요구했었다. 이사회는 이어 두산, LG가 각 5억 원씩, SK가 4억 원을 야구발전기금 명목의 특별회비로 KBO에 납입하기로 결의했다.

이에 따라 히어로즈 가입금 문제를 둘러싼 돈 계산은 두산, LG가 27억 원(앞서 받은

12억 원 포함)을 받되 5억 원을 내놓고 SK는 20억 원을 받고 그중 4억 원을 내놓는 것으로 매듭이 지어졌다.

히어로즈는 이로써 구단 가입금 120억 원을 모두 완납하게 됐다.

KBO는 히어로즈가 가입금을 완납하게 됨에 따라 향후 '트레이드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트레이드 계획서에는 지난 18일 LG와 합의했다는 간판 외야수 이택근(29) 트레이드 건도 포함되어야 할 방침이라고 KBO는 설명했다. KBO는 "히어로즈가 제출하는 트레이드 계획서를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 총재가 트레이드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레이드 계획서는 구단 운영 계획서와는 다르다. 히어로즈의 가입금 문제는 일단락 됐지만 히어로즈가 이택근을 비롯해 좌완 투수 이현승(26), 장원삼(26) 등을 잇달아 트레이드할 경우 급격한 전력 약화로 프로 야구 전체 판도의 흥미를 저하시키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을 것으로 보인다.

히어로즈는 '주축 선수를 죄다 팔아 연명한다'는 비난을 받고, 히어로즈 간판 선수들을 데려가는 구단들도 '선수 빼가기에만 혈안이 돼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초조한 女프로골퍼들

안선주·김하늘 등 후원계약 오리무중

'소문은 많은데, 계약 소식은 안들리네' 올해로 기존 후원사와 계약 기간이 끝나는 정상급 여자프로골퍼 선수들이 많지만 계약금이 폭등 조짐을 보이면서 새 동지를 찾았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올해로 계약이 끝나는 선수 중 우승 경력이 있는 톱 플레이어들은 안선주(22), 김하늘(21), 김보경(23), 이정은(21)을 비롯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뛰다가 국내 무대로 복귀한 홍진주(26) 등 5명이다.

이 중 김보경만이 기존 후원사인 던롭스 리스과 2년간 재계약했을 뿐 나머지 선수들은 재계약이나 새로운 후원 계약을 맺지 못했다.

가장 관심을 끄는 선수는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서 통산 7승을 올린 안선주다.

안선주는 지난 11월말로 하이마트와 후원 계약이 끝났지만 재계약을 하지 못했다. 더욱이 안선주는 일본여자프로골프 출전권을 확보, 내년에는 일본으로 활동 무대를 옮길 것으로 보여 국내 후원사들이 선뜻 나서지 않고 있다.

많은 팬들을 몰고 다니는 김하늘도 코오롱과 계약 연장 협상을 벌였지만 계약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홍진주, 이정은 등도 아직까지 새로운 계약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다.

이처럼 정상급 선수들의 계약이 확정되지 않은 것은 선수들의 몸값이 크게 뛰기 때문이다. 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뛰다가 국내 무대로 복귀한 홍진주(26) 등 5명이다.

이 중 김보경만이 기존 후원사인 던롭스 리스과 2년간 재계약했을 뿐 나머지 선수들은 재계약이나 새로운 후원 계약을 맺지 못했다.

가장 관심을 끄는 선수는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서 통산 7승을 올린 안선주다.

/연합뉴스

미셸 관, 한국 피겨대표에 레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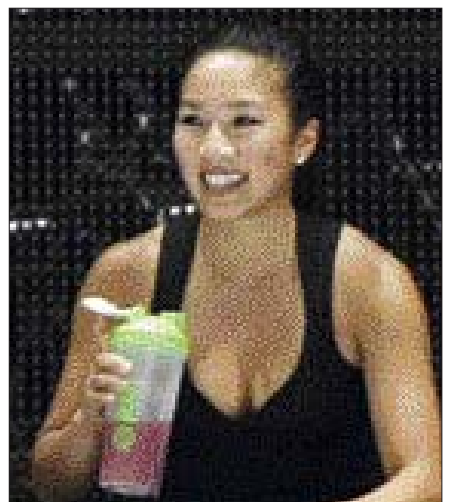
내달 3일 방한

세계피겨선수권대회를 5차례나 석권했던 '피겨 여왕' 미셸 관(29·미국·사진)이 미국 국무부 홍보대사 자격으로 한국을 찾아 국내 피겨대표팀 선수들에게 직접 레슨을 펼친다.

미 대사관 공보과는 30일 "미셸 관이 미국무 홍보대사 자격으로 내달 3일 한국을 방문한다"라며 "일주일 동안 국내에 머물면서 한국 남녀 피겨스케이팅 대표팀 선수들을 대상으로 윈포인트 레슨을 펼치는 등 다양한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은 지난 8월 한국을 처음 찾아 김연아(19·고려대)와 '삼성 애니콜★하우젠 아이스 올스타즈'에서 듀엣 연기를 펼쳐 국내 피겨 팬들의 큰 박수를 받았고, 이번이 두 번째 방문이다.

5개월 만에 미국무 홍보대사로 한국을 다시 찾는 관의 첫 행사는 내달 4일 오후 광화문 광장 아이스링크에서 지역발달장애인



선수로 구성된 스페셜올림픽 피겨대표팀 12명과 스케이팅을 하면서 피겨의 기본기를 가르쳐주는 것이다.

또 내달 5일에는 태릉국제스케이팅장에서 현재 캐나다에서 전지훈련중인 김연아(19)를 제외한 한국 남녀 피겨대표팀 6명을 대상으로 피겨 강습회인 '마스터 클래스' 행사도 펼칠 예정이다.

/연합뉴스



조선족 출신 '천재 탁구소녀'

강미순 태극마크

남자탁구의 '차세대 에이스' 서현덕(18·부천 중원고)과 조선족 출신의 '천재 탁구소녀' 강미순(16·대구 중권·사진)이 쟁쟁한 선배들과 경쟁을 뚫고 태극마크 꿈을 이뤘다.

서현덕은 30일 충북 제천 실내체육관에서 끝난 국가대표 상비군 선발전에서 15승2패의 성적으로 1위를 차지해 5위까지 뽑는 상비 1군에 이름을 올렸다.

서현덕과 '고교 트로이카'로 불리는 김민석(천안 중앙고·KT&G 입단)과 정영식(중원고·대구중권 입단)도 대표에 발탁돼 남자탁구의 '세대교체'를 선언했다.

여자부에선 문현정(삼성생명)이 가장 좋은 16승2패의 성적으로 대표로 복귀한 가운데 중국에서 귀화한 석하정(대한항공)과 16세 유망주 강미순이 나란히 태극마크를 달았다.

지난 2001년 대한항공 파트너로 입국해 한국 국적을 얻은 석하정은 팀 동료인 중국 귀화 선수 당에서와 세계선수권대회에 나란히 출전하게 됐고 조선족 출신의 '신데렐라' 강미순도 한국에서 '코리아드림'을 이뤘다.

문현정, 석하정, 강미순 외에 김경현(14승4패)과 박성혜(12승6패·이상 대한항공)도 각각 대표로 발탁됐다.

이번 선발전 1~5위와 국제탁구연맹(ITTF) 세계랭킹이 높은 유승민, 주세혁(이상 삼성생명), 오상은(KT&G)과 여자부의 김경아, 당에서(이상 대한항공), 박미영(삼성생명) 등 남녀 각 8명이 상비 1군에 편성된다. 상비 1군은 내년 러시아 세계선수권대회(단체전)와 광주 아시아안게임에 대표로 출전한다.

/연합뉴스



그저 바라만 볼 뿐 ...

센터기 와일드캣의 존 윌이 30일(한국시간) 센터기주 렉싱턴 팀 아래나에서 열린 히트포드 호크스와의 경기에서 덩크슛을 시도하고 있다.

/연합뉴스